

창립 89주년 기념식 · 모범 기업인 표창

전주상의, 89년 동안 전북경제 발전 견인... "전북의 발전 위해 더욱 앞장설 것"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창립 89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단, 모범 기업인,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9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주시장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전주상의 회장상 포상이 진행됐다.

김정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랜기간 지역경제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놓은 선배 상공인들의 값진 교훈을 본받아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상공회의소 설립정신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기며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창립 89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단, 모범 기업인,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9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환경 속에서도 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상공인들에게 감사했다. 아울러 김정태 회장은 어려운 경영

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임직원들에게는 전주상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에서 출발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언제 어떤 일을 하든 주체적이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혁신적인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립 89주년을 맞은 전주상공회의소는 우리 지역의 상공업 육성 발전과 상공인들의 권익신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지역개발사업추진,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기술자격검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익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5일 본사에서 인재육성 비전으로 '유연한 혁신인재,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을 설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유연한 혁신인재,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

농어촌공사, 새로운 인재육성 비전 선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5일 본사에서 인재육성 비전으로 '유연한 혁신인재,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을 설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연한 혁신인재'는 식량안보, 기후위기, 도농격차 등 다양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은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이번 선포식에서 공사는 △구성원 역량 강화, △혁신 교육훈련 기반 조성, △인재개발원의 역할 고

도화 등 성공적인 인재육성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무 기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공사의 역할과 요구되는 역량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라며, "새로운 인재육성 비전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기 기자

금리높은 파킹통장
에치핀의 높을수록 더 받는 우대금리

카드모아 3.51%
카드모아 2.8%

전북은행, '美金리인하 주목' 최고 연 3.51% 씨드모아 통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의 파킹통장인 '씨드모아 통장'이 최근 미국 시장의 금리인하에도 최고 연 3.51%의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씨드모아 통장은 일반 잔액에 대해 2.8%의 높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북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이벤트 우대금리 연 0.71%를 더해 최고 연 3.51%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중 신규가입 시 마케팅 등의 0.5%, 매일의 최종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0.21%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

또한, 예치 기간과 입출금 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어 최근 공모주 청약 수요자들과 직장인 월급통장의 필수 통장으로 선택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중한 자산 운용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호남 고속철도 건설현장 견학

도·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 및 회원 90여명 참석, 역대 최대 규모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지난 25일, 도 및 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과 학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4공구 건설현장을 견학하며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로 1951년 창립된 이후 73년동안 토목공학 분야 학문, 기술, 산업발전, 그리고 건설엔지니어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산·학·연·관 회원들간의 유대 강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토목기술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견학 역시 토목기술자의 업무 연찬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에서 개최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견학장소인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4공구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에서 망운면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사업비 3,687억원을 투자, 4.670km의 고속철도를 2021년부터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완공 시 호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고속철도 교통편의 확

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매년 산·학·연·관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토목 기술 발전과 기술자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견학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보령해저터널, 2023년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견학 역시 토목 기술자들이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견학에 참여한 회원들은 "전북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향후 신규 대규모 SOC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발걸을 위한 책임감을 다졌다.

/김익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고객 중심 서비스를 위한 2024년 하반기 CS역량강화 교육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6일 공사 사옥에서 고객만족 마인드를 더욱 확산시키고 고객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S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서비스는 팀워크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나의 서비스 실행력 자가진단 △CS기본 화법 익히기 △공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 고객 응대의 기본 자세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임직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이를 일 상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유익한 경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사 CS 담당자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서비스의 기본을 다지고,

팀워크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한전 군산지사-농어촌공 군산지사, 재해 등 대비 협약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인식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각 기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기후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전 군산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으로 농어촌지역의 환경보호와 안전 예방활동을 주



요 협력사항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전력서비스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전 군산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재난·재해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대국민 전력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결점 전력설비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익기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